



▲ '그리스도의 유혹', 아노니무스, 바실리카 디 산 마르코의 모자이크. (12세기)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 목)

Website: www.stfrancisk.org

청년 website: facebook.com/gropus/yagfyny

Email: stfrancisk.org@gmail.com

주임신부: Fr. Andrew Reitz, O.F.M.

지도신부: 김성인 미카엘(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michaelkofm@gmail.com

지도수녀: 김도경 첼레스틴(특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ohanleosb@gmail.com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창세 2,7-9; 3,1-7

[화답송]시편 51(50),3-4.5-6 가나.12-13.14와 17(◎ 3가 참조)



(후렴)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 사 오 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로마 5,12-19

[복음환호송]..... 마태 4,4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복음]마태 4,1-11

[성가안내]

- 입당성가 [490] 십자가에 가까이
- 봉헌성가 [218] 주여 당신 종이 여기
- 성체성가 [177]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
- 파견성가 [280] 성 요셉 찬양하세

미사 봉헌

영미사	봉헌
김영복 아네스	손명희, 익명
김영우 요셉, 강건대 마리아 부부	제의방
이영우, 이태모	이상홍 스테파노
에델 퀸	은총의 샘 꾸리아
알폰소 램	은총의 샘 꾸리아
가장 불쌍한 연옥영혼, 홍 데레사	울릿다 김
강건대 마리아, 김영복 아네스	울릿다 김
생미사	
이재호 클레멘트, 전마치 마가렛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김화자 데레사, 이경자 벨라뎃다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신정묵 알비노, 한창희 바오로	청년 전례부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영어복음	보편지향기도	봉헌	복사	성찬봉사
3월 1일	홍민철 안젤로	이기수 스테파노	김혜미 레오나	임유진 라자로	최병은 루치아	안선정 배옥희	한창희 황예슬	이규완 이은경 이경현 김지영 백이백 이서원 박정자 김영희
3월 8일	채봉석 그레고리	김중화 필립보	민완준 필립보	오윤서 클라라	김희진 마르가리타	부원희 민정신	신정묵 창동환	장혜윤 이경자(울) 민재인 이지연 양미숙 김영숙 윤숙자 김창훈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두 번째 토요일 오후 6:00 아래 성당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아래성당 고해소
혼인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세례	사무실 : 347-834-5784

[복음 묵상]

“광야, 자신을 벌거벗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자신들이 하느님의 말씀에 의존할 때만 살아남을 수 있음을 뼈저리게 체험한 곳이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느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나게 된다.

살아가면서 이별이나 새로운 일의 시작, 위기 그리고 실업 등과 같은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된다.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보이지 않기에 어디로 가야할지 방향조차 잡지 못하는 곳, 그래서 여기저기서 자신들을 믿고 따라오라는 소리가 더 많이 들려오는 곳. 그래서 광야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돈, 권력과 같은 다른 우상을 선택하느냐?'는 질문에 답해야 하는 곳이다. 또한 광야는 영적으로 충만해진 뒤에 체험하기도 한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심은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는 유혹을 만나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달리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유혹은 타인과 외부에서보다는 우리들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것 같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악마로부터 세 가지 유혹을 받으신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악마의 유혹에 당신의 말씀이 아닌 하느님의 말씀으로만 답변하셨다. 철저히 하느님 이외의 것으로부터 벌거벗으신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체험하신다. 우리가 만나는 광야의 순간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제나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 힘 이외의 것으로부터 자신이 벌거벗겨지고 하느님의 말씀에 더 충실해지는 것임을 잊지 말자.

사순 시기는 하느님 이외의 것으로부터 자신을 벌거벗는 광야로 들어가는 시기이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도 '새로운 하느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자.

임상 경험이 풍부한 MD들이 시술합니다



미백레이저
리프팅/탄력
얼굴윤곽시술
웨딩케어
맨즈케어
메디컬스킨케어

Clear Laser CITY CLINIC
501 5TH AVE. #2011, NY, NY
212.697.1802

📍 ID: clearlasercity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님)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SESQ@YAHOO.COM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11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EST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1AM-11PM/ SUN: 12PM-9PM

인쇄·책 출판
당일 인쇄 가능

EDDM Mailing Services/Yelp. Email Marketing

212.971.0212/ 268.2776
208 W. 29TH ST. #203 NY, NY 10001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김승범 분도 치과

2 WEST 46TH STREET SUITE 501 NY
212-779-3368
1585 PALISADE AVE FORT LEE
201-585-0404

맨하탄 미드타운 통증병원

==== **The Wellness Room** ====

물리치료사 : 김 미카엘
카이로프랙터/한의사 : 김소피아
212-302-2692

광고주를 찾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처음 방문하신 분,
전입하신 분, 환영합니다!
: 다미아노 홀(성당 밖 좌측 20m)

[오늘의 정기모임 및 행사]

- **울뜨레야** : 11시, 교육관 4호실
- **학부모회** : 11시, 교육관 3호실

[다가오는 행사]

2020 Fyny 청년세미나

유학생 혹은 비자로 취업중인 청년분들을 위해, 이민법/세무보고/부동산/연금/투자상품에 관한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각 분야의 현장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 네 분을 직접 모시고, 질의응답 및 개별 상담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니 청년이 아니더라도 위의 문제로 고민 중인 모든 신자 여러분들의 참여바랍니다.

- 일시 : 3.7(토) 4:30-7:30pm
- 장소 : 다미아노 홀
- 신청문의 : 유대건 미카엘 631.655.1733
cloudryu123@gmail.com /
Kakao카톡: cloudryu123

2020년 Daylight saving Time



봄이 한 발짝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서머타임이 곧 시작됩니다.
3월 8일인 다음 주일,
Spring forward! 시계를 한 시간 당겨놓으시어
미사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순특강 및 판공성사

- 주제 : 가톨릭 신자의 6가지 의무
- 강사 : 김성인 미카엘 신부님
- 일시 : 3.8(주일) 10:30-16:00
- 강의 10:30-12:30(다미아노 홀)
- 점심 12:30-13:00(김밥, 다미아노 홀)
- 판공 13:30-16:00(아래성당 고해소)
- 고해사제:
Fr.김성인미카엘, 조홍래베드로(뉴왁대교구),
김철희시몬(퀸즈 성당)
- ⊕ 고백시, 보다 많은 분들이 성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짧게 하시고, 상담이나 긴 고백이 필요한 분들은 개별적으로 신부님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14(토), 청년미사 전후 판공성사가 있습니다.

[모집합니다]

“성경말씀과 나” 원고를 보내주세요.

잔잔한 일상에 가슴을 뛰게 하거나,
우울한 날, 지친 날에 삶을 다독이던,
여러분에게 얼어붙은 바다를 쫓개는 도끼였던
하느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다?
그 흔적을, 울림을 공유하고 싶은 분을
기다립니다.

- 원고의 분량 : letter 사이즈 1장 이내.
(글씨크기 11포인트, 줄 간격 160%)

한국학교, 주일학교 교사

- 한국학교 문의 :
김민정 세라피나(917.887.5040)
- 주일학교 문의 :
김가연 크리스티나(347.882.2244)

청년 성가대 단원 및 반주자

- ‘처음처럼’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청년성가대는 매달 4번째 주일 미사를
담당하며 매주 주일 1시 반에 연습합니다.
-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매주 주일 오후 연습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음악 전공자를 찾고 있습니다.
- 문의 : 정동혁 미카엘(카톡 : cdh306)

청년성서모임 참가자&봉사자

- 청년성서모임은 3-6명의 소그룹 안에서 성서
말씀과 생활 나눔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청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아래 봉사자
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 신청마감 : 3.22(주일)
 - 개강 : 3.29(주일)
 - <요한>과정은 마감되었습니다.
 - 대표봉사자 : 이수현 소화데레사
646.251.4413

미동북부 여성 제38차

꾸르실료 수강자

- 이상, 순종, 사랑을 모토로,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동행을 위한 꾸르실료 3박4일의 여정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 일시 : 4.23(목)-26(일)
 - 장소 : 뉴튼 수도원
 - 대상 : 영세받은 지 3년 이상 된 여성신자로
본당신부님께서 추천하신 분
 - 문의 : 본당 울뜨레야간사 민완준 필립보
929.444.1411

지난 주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 1,680 오인희 강명옥 윤행구 정제임스 최우석 안영옥 강호영 김신욱 김윤정 이기원
감사헌금	\$ 50 라현옥
합 계	\$ 1,730

❖ 꽃봉헌 : \$ 20 노혜영

축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기도해요~

- 3.1 알비노(양제의 주교) 3.3 가밀라
- 3.4 가시미로 3.7 빠르빠두아
- 3.9 프란치스코마나 3.14 마틸다
- 3.17 패트릭, 안젤로 3.19 요셉
- 3.25 성모님 축일

사순절 ‘공동 십자가의 길 기도’

이 기도는 초대 교회 때 예루살렘을 순례
하던 이들이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 빌라도
관저에서 골고타 산까지 직접 걸어가며
기도했던 것에서 유래합니다. 주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십자가의 길 기도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시작 및 주관단체 : 오전 9시, 윗 성당

3/1	울뜨레야
3/8	학부모회/예수성가정회
3/15	양업회
3/22	청년회
3/29	성령기도회

성경 공부

수요일 4.11.18.25	2:30-3:45Pm 7:15-8:30Pm	클레어 룸
주일 1.15.22.29	1:30-2:50Pm	코리안 컨퍼런스룸

2020 교무금 책정을 하셨나요?

교회는 교회 운영비인 교무금을
신자들의 의무 중 하나라고 규정합니다.
교무금을 충실히 내는 것은
건전하고도 올바른 신앙생활의 표현이며
하느님 자녀로서의 도리입니다.
아직 교무금을 책정하지 않았다면
지금, 책정해보면 어떨까요?

성경통독을 위한 입문서 예약판매

지난 한 해 동안 주보를 통해 연재되었던
“성경맛들이기”를 모아 책자로 만들 예정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도서성물부에 신청하세요.

[성경구절]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길로 나를 끌어 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여라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1-4)

가톨릭 신자들뿐 아니라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편 23장 성경 구절입니다. 저 역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 구절을 접하고 성경책 이전에 한편의 아름다운 시를 읽듯 음미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앙인의 삶을 시작하게 된 제 친정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구절이 되었습니다.

제 친정아버지께서는 “종교는 너희 각자의 의지로 믿는 것이니 부모인 나는 자식들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저희 세 자매를 키우셨습니다. 그러다 저는 혼배성사를 받으며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버지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결혼한 딸의 미국 집을 방문하실 정도로 고집도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께 성당에 나가실 것을 권유해 드릴 때면 “나도 너희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는데 왜 자꾸 나에게 종교를 강요하느냐”며 불편해 하셨지요. 그러다 몇 년 전 아버지께서 치매의 초기증상인 경도 인지 장애 판정을 받으시고 우리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좀처럼 늙지 않고 늘 강인할 것 같았던 아버지는 생활의 대부분을 엄마에게 의지하며 살아가셔야 할 정도로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아버지에게도 그러하지만 엄마에게 더욱더 종교의 힘이 필요할 듯 했습니다.

마침내, 제 간절함이 하느님께 닿았는지 두 분이 이곳 뉴욕에서 5개월가량 길게 머물 기회가 생겼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세례까지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서 주일마다 성당에 다니시고 매일 성경읽기를 하시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을 처음 접했을 땐, 평화롭고 아름다운 배경을 상상하며 글쓴이의 마음 또한 평안한 상태에서 쓴 글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다윗이 노년 때 그가 매우 힘들었던 시기에 쓴 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생각을 하면 그 얼마나 커다란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요.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힘들고 지치실 때 이 성경구절로 위안을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주님의 어린양,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제 영혼에 생기를 주시고 바른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

본당 게시판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김화자(소화데레사) 정인해(예로니모)
 김순한(루시아) 김옥지(아가다)
 전마지(마가렛) 이재호(클레멘트)
 이종환(T.아퀴나스) 이정주(소화데레사)
 정창동(폴리나) 김용기(요셉)
 김동희(헬레나) 고종호(마태오)
 홍봉운(바오로) 지군자(스테파니)

[전입을 환영합니다]

김성중(프란치스코), 함지승(소피아)가족

[감사합니다]

♡'성경말씀과 나' 원고내신 분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
 (시편 119,105)

박정호 로사